

2024년 11월 17일의 소식

2024 표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애틀란타  
새**초**복교회



2024년 11월 17일 청년부 예배

##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주님께 감사드리라 감사함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Behold
기도		송윤숙 자매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범사에 감사하라	우정석 목사
헌금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봉헌기도		우정석 목사
축도		우정석 목사
교회소식		운영단

##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교회 / 사역 소식
  - 오늘 친교 | 박승철 집사님, 이병민 형제, 고동기 형제가 준비하였습니다.
  - 밀알선교 | 11월 16일 토요일 밀알 봉사가 있었습니다.
  - 연합예배 | 11월 24일 추수감사주일
  - 추수감사주일 특송 | 추수감사주일에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셀장님 또는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금요일예배 방학 | 11월 22일 / 11월 29일
  - BEHOLD CLASSIC 연주 | 12월 14일 토요일 새축복교회에서 비홀드 클래식 of 성가 및 캐롤 연주가 있습니다. 듣고싶은 연주의 신청 곡을 받고 있으니 원하시는 곡이 있는 분은 송윤숙 자매 또는 정지혜 자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 선교소식 | 10-11월 캄보디아 선교소식(권오병 선교사님)이 로비에 있으니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감사의 달 |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3주차에 걸쳐 한해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1주차: 셀원들에게 감사 표현하기
    - 2주차: 나의 인생에서의 감사 나누기
    - 3주차: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기
    - 감사노트 3가지 작성 후 본당 감사보드에 부착하기
  - 결혼을 축하합니다!
    - 11월 23일 (토) Kevin & Maria
    - 11월 23일 (토) 이해천 & 강성경 | 한국
  - 청년부 총회 | 12월 8일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11/17	송윤숙	예수파셀
11/24	연합예배	연합예배
12/01	장보라	IE종아셀
12/08	TBD	럽셀

##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장년예배	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 양육과 훈련 안내

- 새가족 교육 (3주)
- 세례자 교육 (5주)
- 결혼 학교 (4주)
- 통독 훈련 (매년 1번)
-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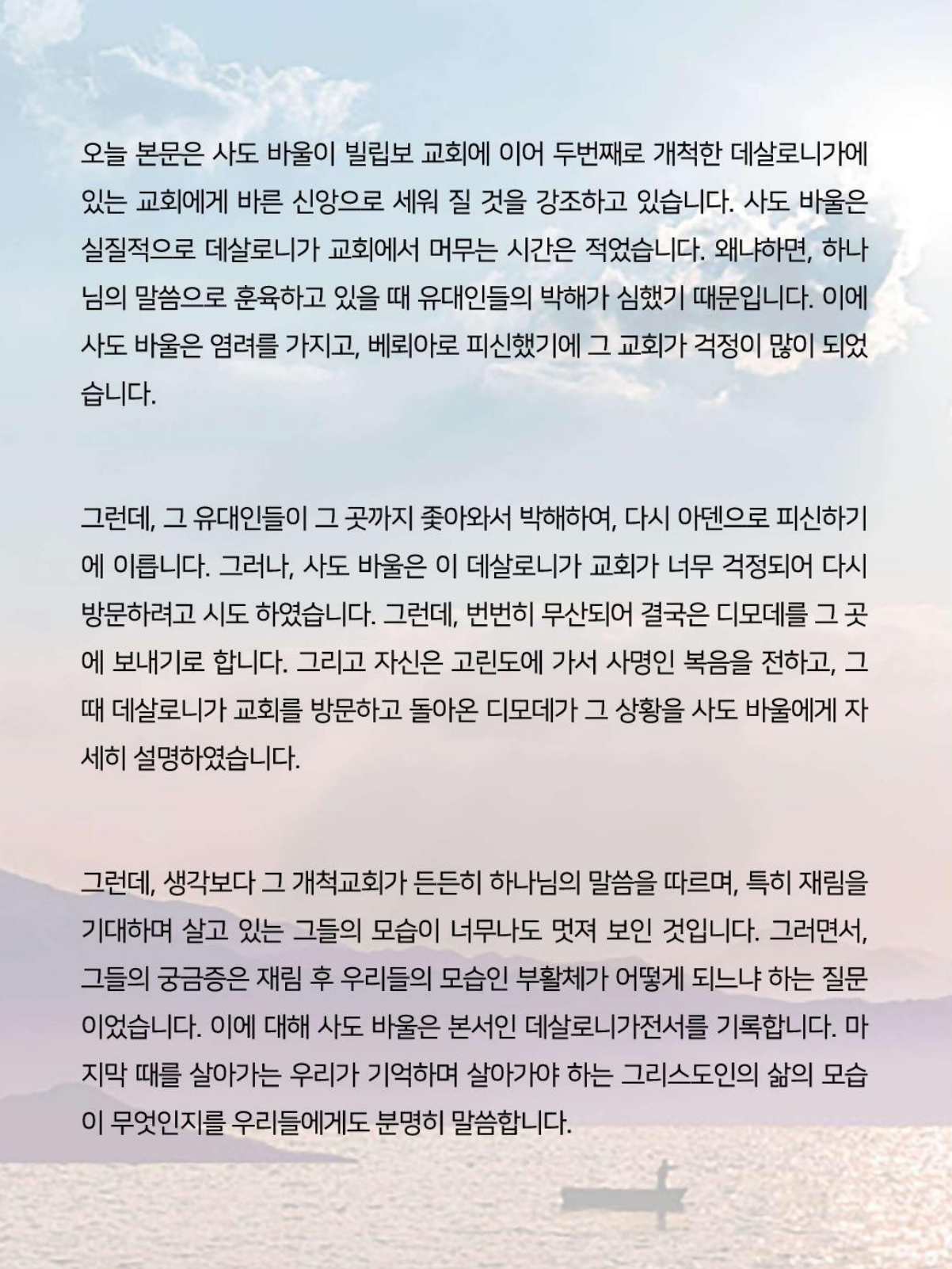
[이 질문지 안에 있는 질문들은 “대화과 목상을 돕는 질문” 들입니다. 시험문제와 같이 기계적으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질문을 보다가 나누고 싶은 목상이 생긴다면, 주어진 질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없는 질문을 여러분이 셀원들에게 던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마주치고, 그 마주침을 셀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 20241117 주일청년 설교요약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 18절

###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만물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파괴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생각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속의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께 자그마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종이를 만들어 선생님께 달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번거롭고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감사의 마음 또한 사라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번째로 개척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바른 신앙으로 세워 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염려를 가지고, 베히아로 피신했기에 그 교회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곳까지 좇아와서 박해하여, 다시 아덴으로 피신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되어 다시 방문하려고 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번번히 무산되어 결국은 디모데를 그 곳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에 가서 사명인 복음을 전하고,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가 그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개척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특히 재림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져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궁금증은 재림 후 우리들의 모습인 부활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서인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은 감사를 포함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 나눔 질문

Q. 감사는 무엇인가요? 사전적 정의가 아닌, 각자가 생각하는 감사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감사는 ....."

Q.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감사를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였습니까?

## **첫째, 항상 기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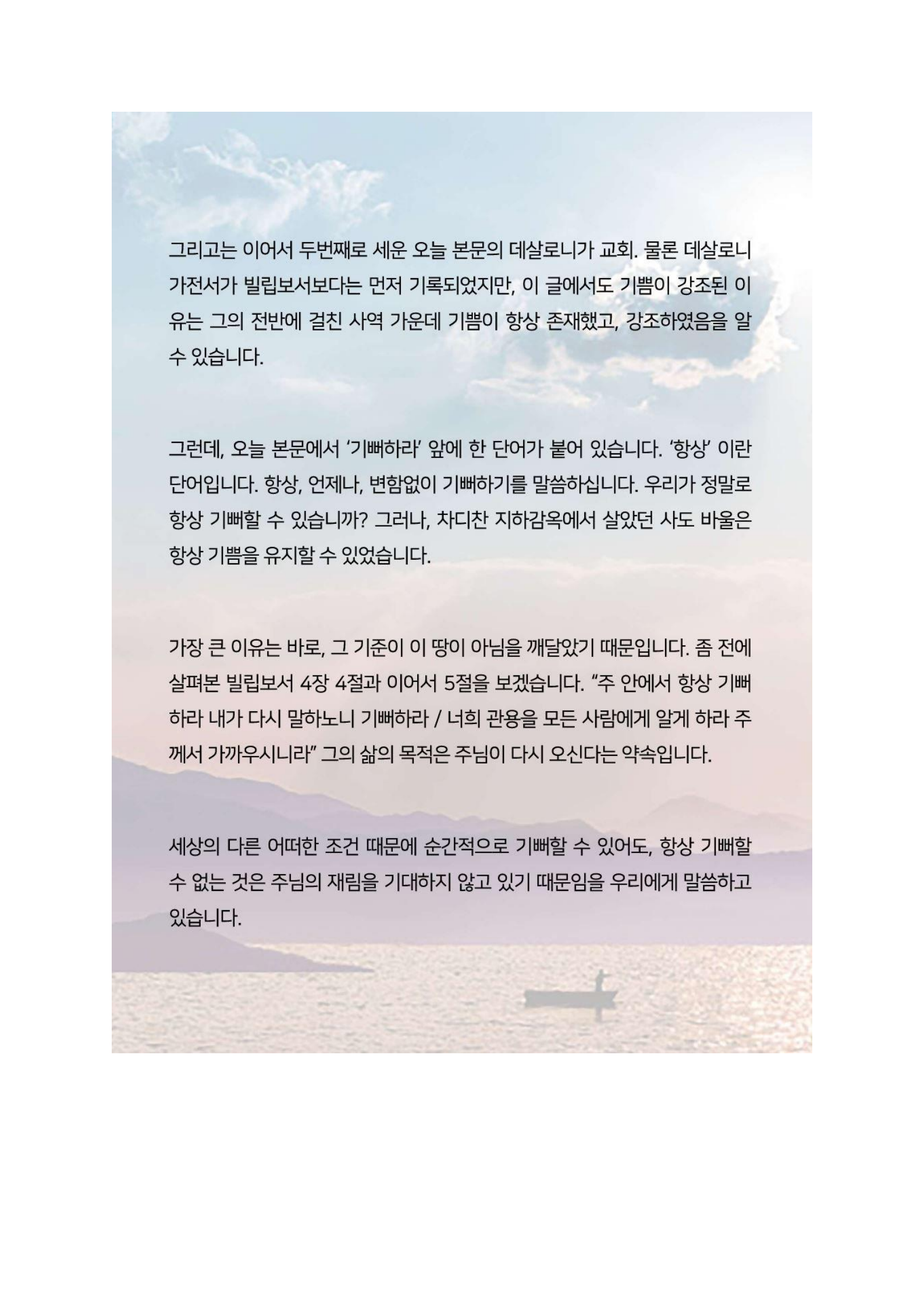
본문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쁨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쁨에 대해 강조한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의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기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록한 글들 가운데 4편은 로마감옥에서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확신에 찬 어투로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리고는 빌립보서 전체 주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첫번째로 세운 빌립보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해 정말로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두번째로 세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물론 데살로니가전서가 빌립보서보다는 먼저 기록되었지만, 이 글에서도 기쁨이 강조된 이유는 그의 전반에 걸친 사역 가운데 기쁨이 항상 존재했고,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항상' 이란 단어입니다.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차디찬 지하감옥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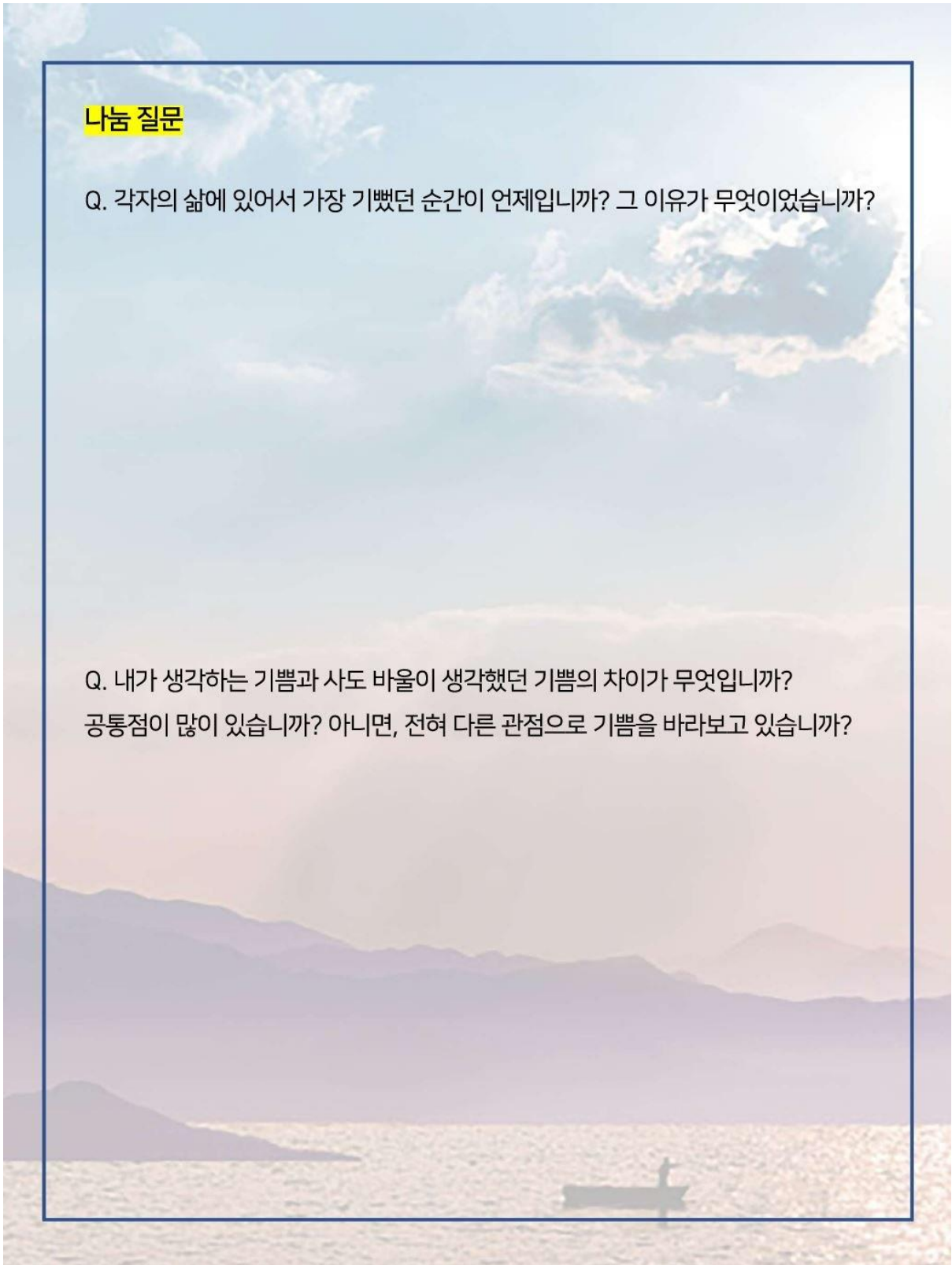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기준이 이 땅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빌립보서 4장 4절과 이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조건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나눔 질문

Q. 각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Q. 내가 생각하는 기쁨과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기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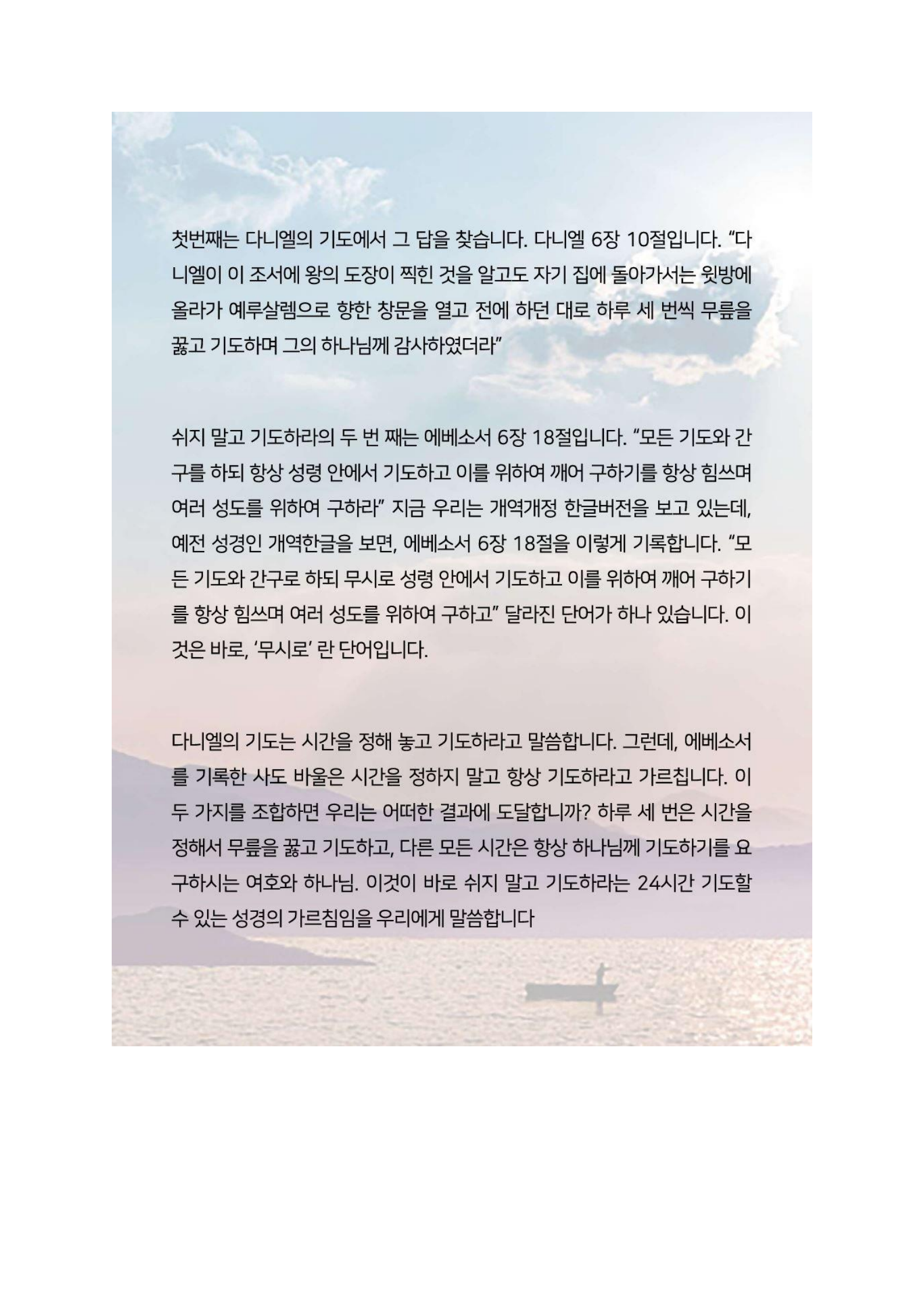


##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문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 언급한 본문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요셉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에스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요나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 스테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떨어져서 기도한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었고, 이미 오신 메시아를 본 사람들과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기도 앞에 한 단어가 추가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 합니다. 한번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역시 또한 질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항상 기도하며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쉬지 말고’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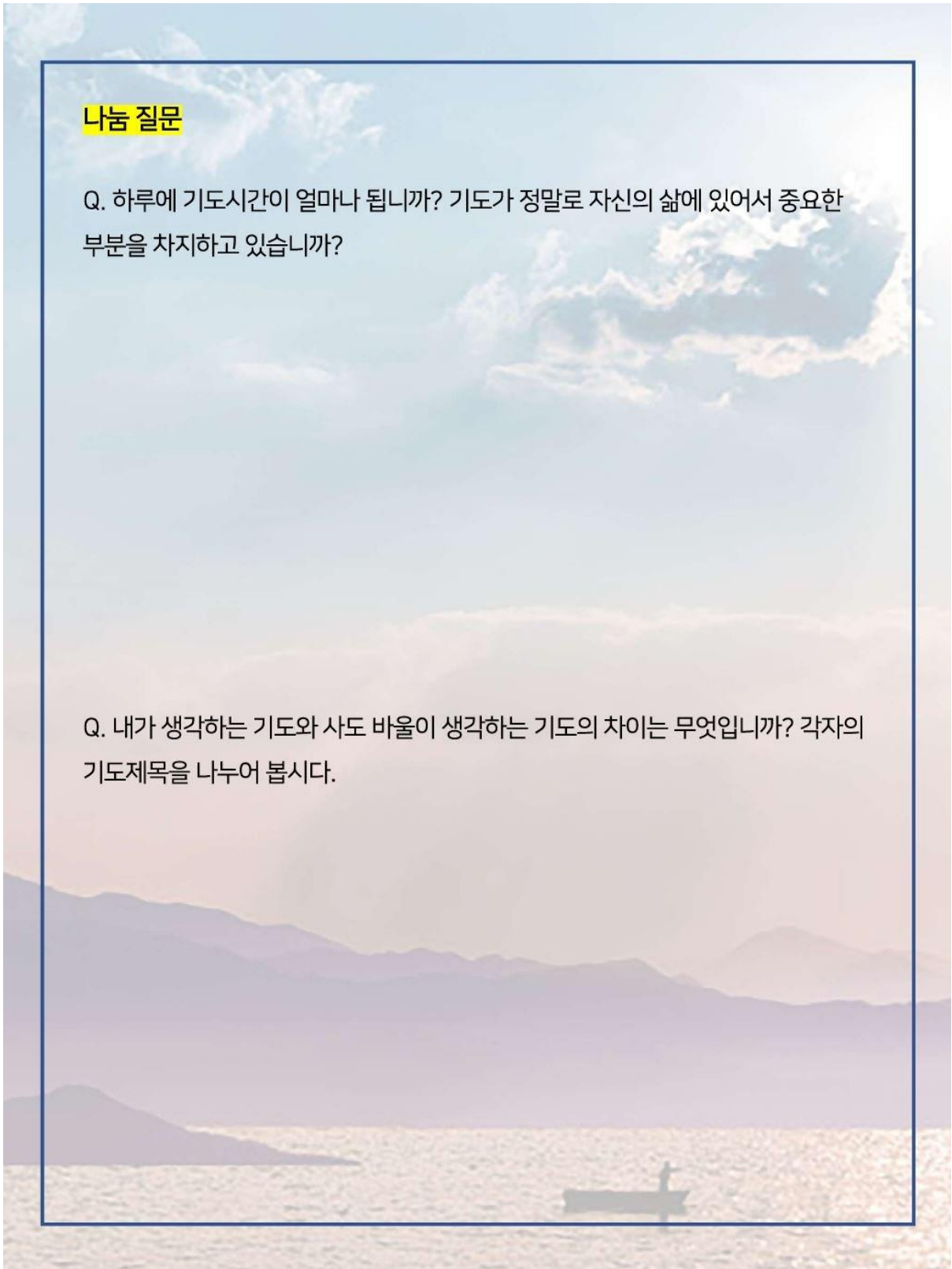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우리는 개역개정 한글버전을 보고 있는데, 예전 성경인 개역한글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달라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시로’ 란 단어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시간을 정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에 도달합니까? 하루 세 번은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른 모든 시간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 나눔 질문

Q. 하루에 기도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도가 정말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Q. 내가 생각하는 기도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기도제목을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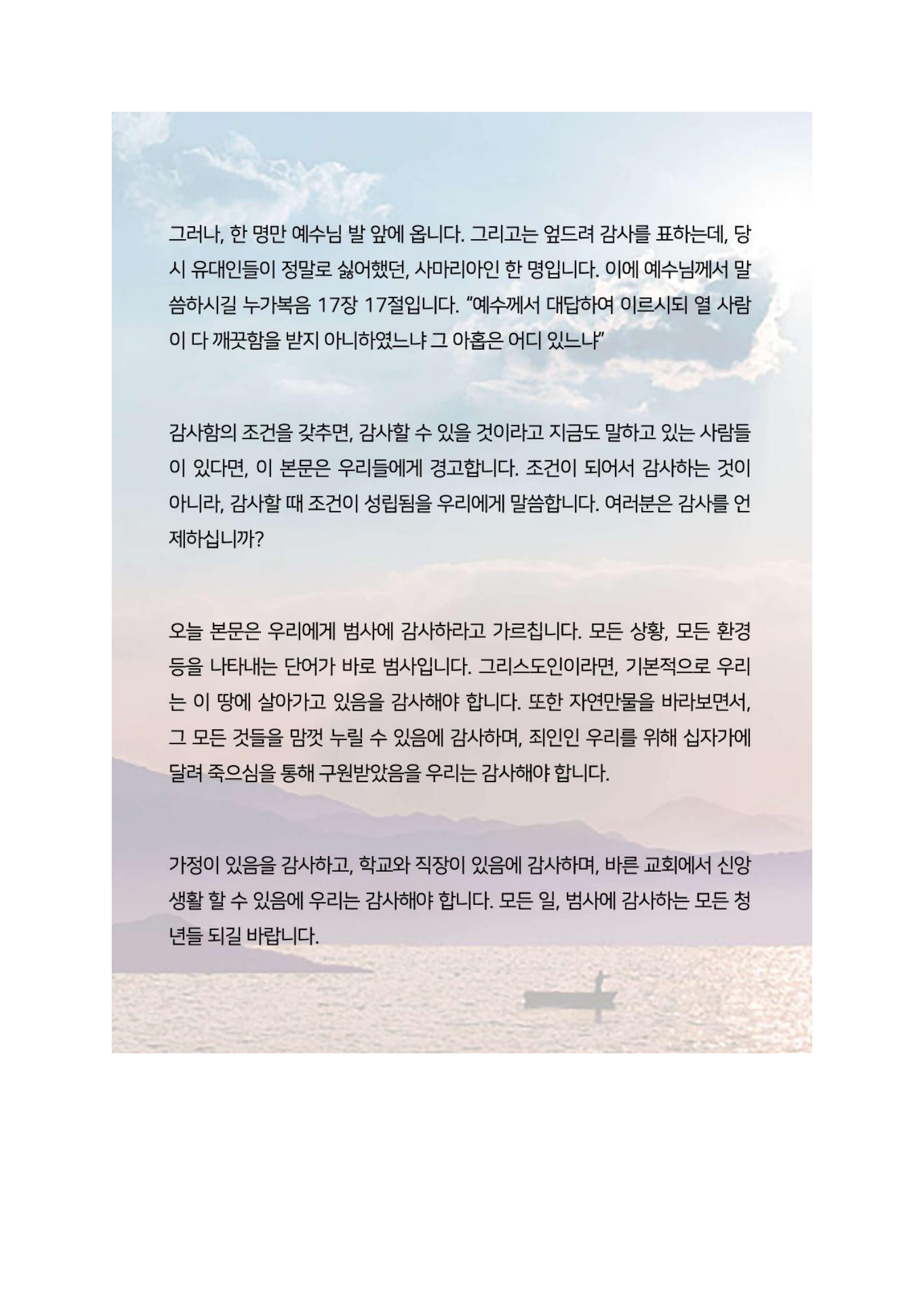
###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본문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번째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님에게 뛰어 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갑자기 나병이 사라집니다. 제사장들이 치유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요. 이들의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열 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로 한 순간에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떠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모두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만 예수님 발 앞에 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감사를 표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로 싫어했던, 사마리아인 한 명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함의 조건을 갖추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조건이 성립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언제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범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맘껏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고, 학교와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며, 바른 교회에서 신앙 생활 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 나눔 질문

Q.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 봅시다. 감사는 표현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표현해 봅시다.

Q. 각자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이 아닌 감사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표현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합니까?